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

도시가스사업법이 지난 1월 3일자로 일부 개정, 공포되었다.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에는 일반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지역에 난방방식을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지역난방으로 채택할 경우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을 거부하거나 지역난방 열원의 사용연료인 도시가스공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난방방식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공급 의무를 부과토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이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2007. 4. 3)부터 시행하고, 다만 제21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제7호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08. 1. 3)부터 시행한다.

□ 개정 이유

일반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지역에 난방방식을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지역난방으로 채택할 경우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을 거부하거나 지역난방 열원의 사용연료인 도시가스 공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국민들의 난방방식 선택권을 제한하여 난방시장에 있어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집단에너지 보급추진으로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국가적인 에너지절약 및 환경개선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국가 에너지정책에도 차질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난방방식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

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공급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 주요 내용

1.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의무 등(안 제19조 및 제19조의2 신설)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허가받은 공급 구역 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 사용자로 하여금 분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2.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의무(안 제21조 및 제 54조제1항제7호의2 신설)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온도와 압력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스부피의 차이를 고려하여 가스공급량을 적정하게 측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및 사업의 통·폐합 명령(안 제40조제2항 및 안 제40조제3항 신설)

-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의무를 위반하여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할 경우,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사업의 통·폐합을 명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함

- ② 일반도시가스공급지역이 택지개발, 광역개발,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그 특성이 현저하게 변화되었을 경우 시·도지사가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및 사업의 통·폐합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Be on bad terms – 양숙

Two schoolboys constantly battled in school, but they both became famous, one as an admiral and the other as a bishop.

One day, meeting on a railroad platform, the bishop inquired:

“Stationmaster, from what platform does the 10:15 train leave?”

The admiral, looking at the churchman’s paunch bulging beneath his robes, replied:

“Platform five, madam. But in your condition, you shouldn’t be traveling!”

학창시절에 노상 싸우기만 했던 두 사람이 해군 제독과 주교로 각각 출세했다.

어느 날 철도역 플랫폼에서 마주치자 주교는 제복차림의 제독을 보고 “역장 나오리, 10시 15분차는 어느 플랫폼에서 출발합니까?”하고 물었다. 제독은 성의에 가린 주교의 불룩한 배를 바라보면서 “5번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부인, 그 몸으로 여행해서는 안 될 텐데요.”라고 응수했다.

「재미있는 영어이야기에 확 빠져들기」 중에서